

정통부, IT 신성장 전략 범국가적 추진



“

지식정보화로 국민 참여사회를 만들고,
IT로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3대 기본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보통신부 주요 현안업무와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식정보화로 국민 참여사회를 만들고, IT로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3대 기본 정책을 중점 추진해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TV와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텔레매틱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기술(IT) 산업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오는 2007년까지 IT 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 달러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또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서비스를 올해 서울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IMT-2000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에 보조금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사이버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도입한 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민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IT 신성장 전략과 관련, 디지털TV 방송 전국망을 2005년까지 완성하는 한편,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오는 2007년까지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창업지원 제도를 정비, 성장유망 기업에 집중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방민원 시대를 다지기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민원으로 확대하

